

‘주먹구구단’ 시페퍼스

광주 시페퍼스가 주먹구구식으로 구단을 운영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로공사에 내줬던 주전 세터 이고은(28)을 불과 6일 만에 다시 불러들이는 등 상식밖 행보 때문이다.

페퍼스는 2일 “한국도로공사에 미들 블로커 최가은(22)과 2023-2024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이고은과 2023-2024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고은은 2013-2014시즌 신인드래프트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한 뒤 지난해 3월 FA(자유계약선수)로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불과 한 시즌을 뛰고 최근 FA 이적시장에서 친정팀 한국도로공사로 복귀했다. 페퍼스가 공격수 박정아를 영입한 뒤 보호선수 명단에서 이고은을 뺐기 때문이다.

구단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선수순으로 보호선수 명단을 짜다보니 이고은이 빠졌다”며 “도로공사에서 이고은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배구 전문가들은 핵심자원인 세터를 뚜렷한 대책도 없이 보호선수로 묶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이 “보호선수 명단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다. 주전세터를 풀어줬다. 의외의 선택이었다”고 밝힌 정도였다. 페퍼스에서 이고은을 대신할 만한 세터가 없기 때문이다. 세터진은 이현, 구술, 박시량으로 이들은 즉시전력인 아니라 미래자원이다.

일부 팬들은 페퍼스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



이고은

고 추측했다. 하지만 ‘믿는 구석’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주일도 안 돼 주축 미들 블로커 최가은과 새 시즌 신인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내주는 출혈을 감수하고 이고은을 재영입한 게 전부다.

세터 이고은은 보호선수 명단 제외 도로공사 내줬다 다시 복귀 논란

드래프트 최대어 김세빈 관심 속 1순위 지명권도 내줘 상식 밖 운영

학폭 이재영 접촉·오지영 파문 등 신생 구단 신선한 이미지 타격

페퍼스는 이고은 트레이드 과정에서 적잖은 출혈을 감수했다. 한 프로배구 해설가는 “이고은을 보호선수로 묶지 않은 것은 큰 실수다. 다시 불러들였다면 것은 트레이드 시장에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방증이다. 트레이드를 주도한 외국인 감독이 국내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올시즌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줬다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시즌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히는 김세빈(한빛고)을 포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세빈은 188cm의 장신 미들 블로커이면서 빠른 공격 능력과 파워를 갖추고 있다. 모든 구단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하위를 차지해 1순위 지명권이 있는 페퍼스가 가장 높은 선발 확률(35%)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1순위 지명권을 도로공사에 넘겨줬다.

페퍼스는 지난해 리베로 오지영을 데려오면서도 값비싼 댓가를 치렀다. GS칼텍스에 2024-20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줬다. 이에



오지영

따라 페퍼스는 올해와 내년에도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트레이드에서 도로공사는 이고은 카드를 활용해 신인 대어를 낚을 확률을 높였고 이적한 미들

블로커 정대영의 공백을 메울 최가은도 얻었다.

반면 페퍼스는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미들블로커 엠제이 필립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기량을 펼치지 못한 염어령, 역시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하혜진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엠제이 필립스는 국내 경증이 필요하고 염어령은 경험을 더 쌓아야 하는 선수다.

페퍼스는 지난해 오지영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가 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의 이적 과정에서 GS칼텍스가 제시한 ‘전 소속 팀 상대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수용한 것이 알려지자 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GS칼텍스가 ‘즉시 전력인 오지영을 이같이 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오지영을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고, 페퍼스가 수용한 것이다. 선수 권리는 물론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 팀 합의에 따라 오지영은 올 시즌 GS칼텍스전 3경기를 뛰지 못했다. 구단은 팬들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

페퍼스는 지난해 10월 학교 폭력 논란을 빚은 이재영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흥행을 치르기도 했다. 그 여파로 신생 구단의 신선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페퍼스 구단 관계자는 “이번 트레이드는 특정한 이주도한 게 아니라 구단의 결정사항”이라면서 “아직 트레이드의 성패를 판단하기 이르고 김세빈도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뽑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청 육상 김국영·정혜림 AG 국대 선발전 출전



광주시청 육상 김국영(왼쪽)과 정혜림.

전국육상경기대회 내일 개막
여주시청 정일우 포환던지기 도전
우상혁 6일 도하·9일 예천서 점프

향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2023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가 5일 경북 예천 스타디움에서 개막한다.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07)을 보유한 김국영(광주시청),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100m 허들 금메달리스트 정혜림(광주시청)이 출전한다.

2023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여자 포환던지기 1위 정유선(안산시청), 남자 세단뛰기 유규민(익산시청), 남자 포환던지기 정일우(여주시청), 여자 원반던지기 신유진(익산시청) 등이 향저우 아시안 게임 출전권 획득을 노린다.

2023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포환던지기 박시훈(금오고)과 남자 원반던지기 최재노(이리공고), 단거리 김동진(대구체고)과 배건울(전남체고) 등 한국 육상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우상혁은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를 마친 뒤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다.

매우 빠른 일정이지만 ‘스마일 점프’ 우상혁(27·용인시청)은 그의 별명처럼 웃으며, 두 개 대회에 모두 출전한다.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1시 20분에 시작하는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에서 올해 첫 실외 경기를 치르는 우상혁은 ‘신체 시간’을 도하에 맞춘다.

KBS배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는 9일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7일 오후 4시 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우상혁은 다시 신체 시간을 ‘한국’으로 돌리고, KBS배가 열리는 예천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이젠 ‘K당구 시대’

산체스·세이키너·최성원 등 세계 3쿠션 강호 줄줄이 PBA 합류

‘스페인 당구전설’ 다니엘 산체스 등 세계 3쿠션 강호들이 대거 프로당구협회(PBA)에 도전장을 내민다.

PBA는 3일 2023-2024시즌 PBA-LPBA 투어 어를 누빌 우선 등록 합격자 17명을 발표했다.

앞서 PBA는 산체스를 비롯해 ‘미스터 매직’ 세미 세이키너(튀르키예), ‘한국 3쿠션 간판’ 최성원, 국내 여자 아마추어 1위 한지은이 차기 시즌 PBA에서 활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4명을 포함해 새 시즌 1부 리그에서 활약할

기회를 주는 우선 등록에는 모두 17명이 합격했다.

해외 선수로는 튀르키예에 강호가 눈에 띈다. 세계 랭킹 21위이자 3쿠션 월드컵 통산 2회 우승을 차지한 무라 나시 초클루를 비롯해 2019년 베켈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루피 체넷이 합격했다.

이번에 합류하는 세이키너와 이들을 비롯해 현재 PBA에서 활동하는 비틀 위마즈(엘컴저축은행), 찬 차팍(블루원리조트) 사와쉬 블루트, 아드난 육셀까지 튀르키예 선수들의 활약이 관련 요소로 떠

올랐다. 이밖에도 2019년 세계 3쿠션선수권대회 준우승자 응우옌 독 안 차옌(베트남)과 ‘프랑스 영건’ 막심 파나리아도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낸다.

첫 시즌부터 PBA에서 뛰다가 세계당구연맹(UMB)에 복귀했던 로빈슨 모랄레스(콜롬비아)와 즈영 아인 부(베트남)도 이번에 PBA로 돌아온다.

국내 선수로는 꾸준히 상위권에 입상했던 베테랑 이충복과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프레데리크 쿼드롱(벨기에·엘컴저축은행)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해설위원 김현석도 우선 등록에 합격했다.

여자부 LPBA에서는 국내 아마추어 랭킹 1·2위 한지은과 장가연을 포함해 총 6명이 데뷔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제14회 광주시장배 여성테니스대회 참가자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여성 테니스 동호인들 화합 한마당

광주시장배 여성테니스대회 6일 개최...400여명 참가

광주시테니스협회 여성위원회가 6일 광주진원 국제테니스장 및 보조구장에서 ‘제14회 광주시장배 여성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여성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화부, 금배부, 신이부 등 3개 부문에서 400여명의 여성동호인들이 참가한다.

모든 경기종목은 대한테니스협회와 광주·전남 테니스협회 경기 규칙 및 셸프 저지 룰이 적용된다.

예선 조별리그 각 조 1, 2위가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방식은 5:5 타이브레이크 노 애드시스템 방식이

적용된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여성생활체육 활성화와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광주시 후원을 받아 이 대회를 14년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금희 광주시테니스협회 여성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2023광주오픈남자 쉐린저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동참하기 위해 열린다. 참가 선수단 모두가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대회를 치르겠다”며 “이 대회를 통해 여성생활체육 활성화와 테니스인구 저변확대 및 여성 동호인들의 우정고 화합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2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3관 드림
- 4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5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6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스토리의 문단속
- 9관 존 워 4
- 7관 싸네카들 극장판 팡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드림, 존 워 4
- 8관 싸네카들 리턴 투 서울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오교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

